석사학위논문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8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김 용 자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강 관 식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esire through the Munbangchaekgado and the Censer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2017 년 12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김 용 자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강 관 식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연구

- 본인이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esire through the Munbangchaekgado and the Censer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12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김 용 자

국 문 초 록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 양 화 와 진 채 화 전 공
김 용 자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 안에는 책과 골동품, 꽃, 안경, 찻잔, 주전자, 수석, 과일, 시계 등 다양한 기물들이 있다. 책가도(冊架圖)는 정서적이며 물질적 편안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상서로운 기운을 진채(眞彩) 기법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표현해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며, 안락(安樂)과 풍요(豐饒)를 꿈꾼다.

책거리 속의 상서로운 기물들은 자식 출세(出世)와 행복(幸福)을 비는 기복적(祈福的)인 신앙(信仰)과 길상적(吉祥的)인 축원으로 가득하다. 기물(器物)을 좋아하는 질박한 취미가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책가도 사이와 그림들 중심에 향로(香爐)를 배치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기물(器物)이기 때문이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도구이다. 향로는 종교 의례용으로 쓰이지만 현대에서 종교적인 행사 외에도 명상을 할 때 필요하다. 향은 심신을 안정 시켜주며, 인간의 오감과 감성을 만족 시켜주며, 깊은 깨우침과 내면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책가도(冊架圖)와 향로(香爐)’를 통해 행복(幸福)과 장수(長壽)를 기원(祈願)하며, 단순한 장식화(裝飾畵)의 의미를 넘어서 좋은 삶을 바라는 염원축원(念願祝願)이 과거(過去)와 현재(現在)를 넘나들며 공존(共存)하고 더 나은 미래(未來)를 위한 희망(希望)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意味)를 담았다.

【주요어】 문방책가도(文房冊架圖), 향로(香爐), 행복(幸福), 장수(長壽), 희망(希望), 전통 진채(眞彩)기법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작품의 이론적 배경-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표현 전통- 3

제 1 절 문방책가도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 3
1) 문방책가도의 형식과 양식 ····· 3
2) 문방책가도의 소재와 의미 ····· 4
3) 문방책가도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 7

제 2 절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 8
1) 고려시대의 향과 향 도구 ····· 8
2) 조선시대의 향과 향 도구 ····· 9
3) 향로를 통해 본 염원 표현의 전통 ····· 10

제 3 장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작품 연구 ····· 13

제 1 절 문방책가도를 통한 염원 표현 작품 연구 ····· 13
1) <소원을 담은 이야기> ····· 13
2) <꿈의 향기들> ····· 16
3) <감성을 품고 날개를 펴다> ····· 19
4) <행복한 일상을 꿈꾸다> ····· 22
5) <소박한 꿈에 색을 물들이다> ····· 24

제 2 절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작품 연구 ····· 26
1) <복이 가득한 자리> ····· 26
2) <우주의 향기를 받다> ····· 29
3) <천수를 누리소서> ····· 32
4) <꽃속에 깃든 소망> ····· 35
5) <푸른 꿈이 훨훨 날다> ····· 37

제 4 장 결 론 ····· 39

참 고 문 헌 ····· 42

ABSTRACT ····· 44

표 목 차

[표 1-1] 기물의 종류 및 의미 ····· 5

그 림 목 차

[그림 10-1] 소원을 담은 이야기, 비단에 채색, 금박, 67×35cm, 2016 13
[그림 10-2] 꿈의 향기들, 비단에 채색, 금박, 67×35cm, 2016 ····· 16
[그림 10-3] 감성을 품고 날개를 펴다, 비단에 채색, 금니, 40×30cm, 2016 19
[그림 10-4] 행복한 일상을 꿈꾸다, 비단에 채색, 금니, 40×30cm, 2016 22
[그림 10-5] 소박한 꿈에 색을 물들이다, 비단에 채색, 금니, 40×30cm, 2016 24
[그림 10-6] 복이 가득한 자리, 비단에 채색, 45×38cm, 2016 ····· 26
[그림 10-7] 우주의 향기를 받다, 비단에 채색, 금니 45×38cm, 2016 29
[그림 10-8] 천수를 누리소서, 비단에 채색, 금니, 45×38cm, 2016 32
[그림 10-9] 꽃속에 깃든 소망, 비단에 채색, 금니, 45×38cm, 2016 35
[그림 10-10] 푸른 꿈이 훨훨 날다, 비단에 채색, 금니, 45×38cm, 2016 37

제 1 장 서 론

책가도(冊架圖)는 우리말로 책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진다. 옛사람들은 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선비가 주도하는 사회였고, 책은 유일한 선비들의 지도서였다. 책을 통해 출세하고, 출세를 통해 선비로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1)]

문방책가도는 서책과 골동품, 문방사우 외에도 선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향로, 화병과 꽃, 안경, 찻잔, 주전자, 수석, 과일, 산호가지, 시계, 서안, 방한모 등 여러 가지를 그린 그림을 말한다. 선비들이 기물을 좋아하는 것은 질박한 취미생활이며 유교적이면서 불교적인 면과 도가적인 미학이 담겨져 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도구이다. 향로는 종교 의례용으로 쓰이지만 현대에서는 종교적인 행사 이외에 명상을 할 때 필요하다.

향[2)]은 심신을 안정 시켜주며, 인간의 오감과 감성을 만족시켜주며, 명상을 통해 깊은 깨우침도 주며 내면을 수양하는데 필요하다. 명상은 일상생활과 병행이 가능하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즐거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긍정적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

책거리 중심에 향로를 놓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기물이기 때문이다. 향을 통해 희망과 미래가 보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았다. 북송의 시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은 향을 사랑한 나머지 향십덕(香十德)을 이야기 하였다.[3)]

본 연구 주제는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해서 옛 선인들이 기물을 좋아하였던 이유와 의미를 연구하였다.

---

1) 경기도박물관. (2012).『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pp.172.

2) 허충순. (2003). 『韓國의 茶席花』. 시선. pp.38.

3) 첫째, 감각이 귀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둘째, 심신을 정화시켜준다. 셋째, 능히 지든 때를 없애준다. 넷째, 능히 잠을 깨워준다. 다섯째, 조용한 가운데 내 벗이 되어준다. 여섯째, 속세의 일로 지든 마음에 여유를 가져다준다. 일곱째, 아무리 많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여덟째, 아무리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 아홉째, 오래 보관해 두어도 썩지 않는다. 열 번째, 항상 향을 피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연구 방법은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와 본인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향로, 책, 도자기, 골동품, 과일, 꽃 등 의미와 옛 선비들은 물론 현대인들이 아직까지 책거리를 좋아하는 마음과 향로가 주는 의미를 문헌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작품의 이론적 배경
–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

제 1 절 문방책가도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1) 문방책가도의 형식과 양식

책가도는 서책과 기물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다. 책거리 그림은 현대적인 감각의 역원근법과 입체적 기법으로 표현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책뿐만 아니라 책과 관계없는 갖가지 일상 용구들이 함께 어울려 기묘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책가도는 기물을 묘사함에 있어 다양한 투시도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먼 곳에 위치한 기물의 크기를 키우는 역원근법을 사용해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했다. 기물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각도를 이용하여 묘사 했다. 책가도의 아름다움은 구성미라고 할 수 있다. 서안형(書案形) 책가도는 화려한 색상과 풍성한 감각, 상서로운 상징들로 인해 더 강한 흡인력을 갖는다.[4] 서안을 사용한 책가도는 기물을 평면적으로 넓게 펴지 않고 위로 계속 쌓아 올리고 기물들이 서로 겹치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기물 사이에 여백을 남기지 않고 다양한 물건들로 채워 놓았다.

책을 쌓아 놓은 모양이나 자를 사용한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소형탁자인 서안에 책과 기물을 쌓아 놓은 책가도는 유럽식 정물화와 유사하다. 서책과 문방사우인 벼루, 먹, 붓, 종이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포도, 오이, 가지, 수박 등 다산의 상징인 씨가 많은 과일과 채소도 등장한다. 부부의 애정을 나타내며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였다.[5] 서안을 사용한 책가도에는

4) 서예박물관, 현대화랑. (2016). 『조선 궁중화 · 민화 걸작 문자도 · 책거리』. 예술의전당, 현대화랑. pp.226.

5) 위의 책. pp.226.

학문을 중요하게 여기며 선비의 정신이 반영된 그림이다. 서안 위주의 그림들을 선택하여 연구를 하였다.

2) 문방책가도의 소재와 의미

문방책가도는 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물을 그린 그림을 가리킨다. 문방기물과 책을 소재로 하여 배움을 나타낸 책거리는 선비들의 사랑방을 장식하였다. 당시 많은 책을 읽고 싶어 하던 선비들의 염원과 출세를 바라는데 사용되었다. 일상적으로는 장수, 복, 다남 등을 바랬던 것이다. 책과 서가 및 방안의 기물들을 함께 그렸다. 책과 기물이라는 책거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책가도는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물품에 대한 관심과 욕망을 묘사하였다. 책가도는 부귀(富貴)와 재물 등과 관련된 각종 진귀한 기물들이다. 갈수록 책가는 없어지고 기복적이고 길상적인 기물이 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물을 등장시켜서 부귀를 바라는 기복적 경향이 직접적이고 노골화 되어 있다.[6] 책, 종이, 붓, 벼루, 먹, 안경, 안경집, 담뱃대, 지팡이, 화병, 도자기, 부채, 꽃, 도검, 활, 바둑판, 술병, 술잔, 향로, 고동기, 수석, 석인재, 수박, 오이, 참외, 유자, 천도복숭아, 여자치마, 꽃신, 족두리, 촛대, 시계, 인장, 장도, 방한모, 필통, 두루마리, 서안, 경상, 문갑, 도자기, 주전자, 찻잔, 오이, 참외, 포도, 불수감, 공작꼬리, 꿩 털, 망건, 갓, 가지, 영지, 석류, 새, 전각, 산호가지, 청동기, 도자기, 보병[7] 등 많은 기물들이 등장한다.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와 의미가 있다.

6) 서울역사박물관. (2009). 『옛 그림을 만나다』. p.287.

7) 김기화. (2005). 『민화 책가도의 표현 방식 연구』. 경기대학교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

[표 1-1] 기물의 종류 및 의미

종 류	의 미
부 채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 단오에 부채 선물을 하는 습속이나 굿에서 부채를 무구(巫具)로 사용하는 이유도 부채는 신선이 지니는 물건의 하나로 여겨지며 미술 등에서 칠보 또는 팔보문의 하나로 표현된다. 부채 문양은 모두 길사와 벽사의 기운을 나타낸다. 단오에 부채를 선물하는 습속이 보편화되었는데 부채를 염병을 쫓는 부채라는 뜻인 벽온선(辟瘟扇)이라고 일컬었다.
장 미	《양화소록》 에서 장미를 가우(佳友)라 하며 화목9품계 중에서 5등이며 동국세시기에 5월에 노란 장미꽃을 따다 떡을 만들어 기름에 지져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월계화, 장춘화라고 하며 평안을 의미하는 화병(보병)이며 1년 내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매 화	고결한 선비의 품격을 나타낸다. 미덕, 정절
목 단	부귀, 성실, 백화의 왕.
작 약	귀한 친구
연 꽃	* 고난 속에 피어나는 순수, 깨끗한 선비정신도 의미한다. 연밥은 다손(多孫)과 풍작을 상징하며 연밥의 작은 구멍 속을 재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아 풍족한 삶과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상징한다.[8)] * 무염청정(無染淸淨)을 나타낸다.
파 초	앙우(仰友), 파초의 푸름 속에서 군자의 기상을 나타낸다.
국 화	지조와 절개, 군자의 기상, 사군자의 하나이다.
맨드라미	벼슬에 오르는 것을 기원하는 뜻이 있다.
목 련	품행이 바르고 절조가 굳어서 고고한 마음을 나타낸다.

살구꽃	과거 합격과 등용문(登龍門)을 상징한다.
영지초	십장생의 하나, 길하고 존귀함을 상징한다.[9]
대나무	* 군자의 품격이나 절개의 상징, 축수의 의미. 우리나라의 전통혼례에서 대례 상에 송죽(松竹)을 병에 꽂아 놓는데 송죽은 잡신을 물리치고 장수를 비는 뜻도 있고 절개를 상징하는 사랑의 맹서라고 할 수 있다. [10] * 정직심(正直心), 곧은 성품과 욕심 없는 마음을 나타낸다.
석 류	자손번창과 다복을 의미한다.
수선화	부부애를 말한다.
작 약	재회(再會)를 상징한다.
앵두꽃	사랑을 상징
석 류	자손번식을 상징하며 꽃봉오리는 다남을 의미한다. 석류를 심으면 자손이 흥하고 부귀가 늘 함께 한다 하여 정원수로 각광을 받는다.
수 박	씨가 많아 다남다산(多男多産)을 의미
복숭아	장수를 뜻한다.
불로초	장로불생을 상징한다.
물고기	장수, 다남, 신통력, 출세를 의미한다.
닭	천계도(天鷄圖)나 계도(鷄圖)라 한다. 공직을 의미한다. 천계(天鷄)가 금계(金鷄)이다. 천계(天鷄)는 하루에 세 번 운다고 한다. 첫 번째는 아침에 바닷가에서 태양이 목욕할 때이고 두 번째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 세 번째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모습을 감출 때라고 한다.[11]
책(교육)	주역의 몽괘(蒙卦)에는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 스승이 동몽에게 배우기를 강요하는 방법이 아니라 동몽이 스스로 스승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간곡한 정성과 의욕에서 실행되

	어야 한다. 소박한 선천성이 온전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박한 마음을 지니고 좋은 지도자 로부터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12]
버드나무	생명력, 길상을 표현한다. 춘풍(春風)을 상징하며 유연한 마음을 나타낸다.

3) 문방책가도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독서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주자의 말을 인용하였다.[13] 책을 열심히 보면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숭배함 가졌다 속에 대우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다.[14] 문방책가도의 다양한 도구들은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고 있는 물건들이다. 실생활에 들여 놓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물들은 그림을 통해서 함께 숨 쉬며 살아왔다.

책가도 속의 꽃들도 미적 감상의 대상과 예술의 형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비들의 정신수양의 한 방편으로 더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보통 다섯 가지 복이라고 하면, 오래살고, 복되게 살며, 병환이 없고, 덕을 나누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안락과 풍요를 꿈꾸었다. 정신적인 것에는 부부화합, 가내평안, 입신출세, 공명, 총명, 귀(貴)등이 있다. 물질적인 것에는 풍부한 재산 등의 확보가 있다.

인간은 탄생과 생명의 지속, 그리고 복을 지키고 풍요로움을 오래도록 지

8) 임두빈. (1993).『한국의 민화1』. 서문당. p.10.

9) 이상희. (2004).『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pp.29.

10) 이상희. (2004).『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pp.69.

11)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1994).『상상동물이야기』. 까치. p.114.

12) 최완식택해. (1990).『周易』. 혜원출판사. p.54.

13) 최완식택해. (1990).『周易』. 혜원출판사. p.55.

14) 서예박물관, 현대화랑. (2016). 『조선 궁중화 · 민화 걸작 문자도 · 책거리』. 예술의전당, 현대화랑. pp.235.

속 시키는 것이다. 본인의 그림 역시 집안의 복을 지키고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한 염원의 뜻이 담았다.

제 2 절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전통

1) 고려시대의 향과 향 도구

우리나라에서 향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卷4 신라본기(新羅本紀) 第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국가로 향로가 많이 만들어 졌다. 향공양(香供養)이란 향을 피웠을 때, 향의 향기가 퍼져서 세상을 밝히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불교의례 중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공양법이다.[15]

향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발산하는 것을 소향(燒香)이라고 한다. 소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도구가 있어야 한다. 『진씨향보』에 향로(香爐), 향성(香盛), 향반(,香盤), 향시(香匙), 향저(香저), 향호(香壺), 향앵이 언급되어 있다.

고려시대 향로가 있었으며 왕실의례에 소향을 한 것은 의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며, 불가에서도 소향을 하였다.

향의 종류로는 조서를 맞을 때는 사향(麝香)을 피우고 공적인 모임에는 독누(篤耨), 용뇌(龍腦), 전단(栴檀), 침수(沈水) 등을 피웠다.

향의 형태로는 향의 분말을 환의 형태로 만든 향환과 향의 분말을 틀에 넣고 찍어내는 향전이 있었다.

소향 방법으로는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막대 형태의 향을 불에 붙여 태우는 선향과 향로 안에 산의 형태로 재를 쌓은 다음 그 안에 향탄을 넣는 방법과 향로 위에 직접 향환 또는 향전을 놓고 향을 태우거나 또는 향 탄 위에 은판이나 운편을 놓고 그 위에 향환이나 향전을 놓고 태우는 방법이 있다.

향도구로는 향로, 향합, 재를 쌓고 정리하는 향시, 향을 집는 젓가락, 향시와 향저를 보관하는 향병, 향반은 향시를 놓는 쟁반, 향저를 담는 향호, 향을 보관하는 항아리, 향도구들을 보관하는 향상 등이 있다.[16] 고려시대의 향로는

15) 이화진. (2013). 『조선시대 향완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

통일신라와 조선시대 향로의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이는 고려시대를 걸쳐 조선시대까지 국가나 사찰, 민간에서도 염원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왔다.

2) 조선시대의 향과 향 도구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다르게 유교가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17] 향로는 궁중은 물론 일반 백성 제사에 필요한 기물로 형태나 문양이 고려시대와 다르고 재료도 또한 다르게 사용하였다. 조선시대는 고려의 불교의식용 향로에 비해 규모가 작아지고 제사가 일반화 되면서 향로도 단순하고 담백함을 보인다. 선비들도 서재나 사랑방에서 일상적으로 향을 피웠다.[18] 향은 선향과 향탄에 향 가루를 넣는 향이 주로 있었으며 향도구로는 거향로를 사용하였다. 거향로는 책상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향로는 말한다. 고려시대의 향 문화를 이어받아 조선시대에는 향도구로는 향로, 향합, 향시(향로 안에 재를 쌓고 정리하기 위한 곳), 향저(향을 집어 향 탄에 올릴 때 사용하는 젓가락), 향병(향시와 향 저를 보관 하는 곳), 향반(향로를 놓는 쟁반), 향호(향 저를 담는 용기), 향앵(향을 보관하기 위한 항아리), 향상(향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상자)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불교보다는 유교를 더 숭상하여 고려시대보다 다양한 향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의 도구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조선후기에는 백자향로를 많이 사용하였다.

16)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향로』. p.8-10.

17) 유승열. (2004). 『전통향로를 응용한 현대 도자향로 제작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18) 유승열. (2004). 『전통향로를 응용한 현대 도자향로 제작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7.

3) 향로를 통해 본 염원 표현 전통

향로는 향을 공양하기 위해 불단에 올리는 예배용(禮拜用)과 자신이 수도하는데 필요한 완향용(玩香用), 예배를 하거나 의식행렬에 사용되는 의식행렬용(儀式行列用)으로 볼 수 있다.[19]

불교의례에 향을 피우고 소향을 하는 이유는 설법을 청하는 권청의 의미와 권청 이외에도 향기가 법계(法界)에 두루 퍼져 향기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과 도량장엄 등의 목적이 있다.[20] 특히 향로에 대한 구약성경의 내용은 오늘날 향에 대한 문헌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들로서 그 내용 또한 매우 풍부하다. 레위기나 민수기에 의하면, 사제들은 향로를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며, 향은 반드시 향로에서 태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은 초기에는 실내에서만 사용하다가 점차 야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21]

향을 사르는 행위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고, 더 밝은 내일을 마주하기 위해서이다.

원감국사가 읊은 시 <次韻答蘭松禪師印公(난송선사 인공의 운을 이어서 화답하다)>에 보면 향불을 피우고 참선하는 모습이 보인다.

빈 뜰에 솔방울 떨어지고
고요한 방에 향불 연기 하늘거리네.
무엇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을 풀거나
취나물과 엄차가 있거니[22]

19) 박지은. (2016). 『물고기를 형상화한 백자향로 제작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

20)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향로』. pp.30.

21) 학고재. (2001).『백제금동대향로』. p.410.

22) 김명배. (1994).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pp.55.

김시습(金時習)이 염포(鹽浦)에서 일본 스님인 준장로(俊長老)와 차를 마시고 읊은 시이다.

일본 스님인 준장로와 이야기 하며
고향을 멀리 떠나니 자질구레한 생각 쓸쓸하고
예부터 산꽃 속에 고요하고 쓸쓸하게 보내네.
철관에 달인 차 손님 음료로 바치고
질화로에 불 더하여 외씨 향을 사르네.
봄 깊으니 바다위에 뜬 달이 쑥대 문에 비치고
비 멎으니 산 사슴 새끼 약초 모종을 짓밟네.
선의 경지와 나그네 심정이 모두 아담하니
맑게 갠 밤을 새워 도란도란 이야기하여도 무방하리.[23]

원감국사(圓鑑國師)가 읊은 〈한가한 가운데 문득 쓰다)> 시이다.

오지사발에는 차거품이 희고
비자나무 책상에는 하늘거리는 연기가 향기롭네
비가 그친 산집은 고요한데
난간에 나아가니 저녁의 서늘함이 기분 좋구나.[24]

23) 김명배. (1994).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pp.127.
24) 김명배. (1994).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pp.132.

아암 혜장(兒庵 惠藏. 1772-1811)의 시 〈장춘동 잡시(12수 중 셋째 수)>.

불탑과 공덕비를 몇 바퀴 도노라니
한 송이에 꽃잎 다섯이 모두 향기롭네.

향대에서는 매양 단향의 향기 피어나고
절의 부도에서는 사리의 광채가 있네.

물길 산길이 멀어도 혼령은 오고가나
긴긴 세월 지나도 꿈은 덧없기만 하네.

고승은 이런 날 도리어 쓸쓸하기만 하니
좋은 시절에 뉘라서 찻잔 올릴 수 있으리[25]

추사 김정희의 시 <초의선사를 기다림>에도 수행하며 깨닫는 모습이 있다.

눈앞의 흰 잔에 조주다를 마시고
손 안에는 수행의 꽃을 쥐고 있네.
한 소리 가르침 받은 뒤로 점차 새로와져
봄바람 부니 어디멘들 산가가 아니리오.[26]

25) 정영선. (2001). 「대둔사(大芚寺)의 다맥(茶麥)」. 『차문화연구지』, 제10권, p.61.

26) 정영선. (1996). 『다도철학』. 너럭바위. pp.166.

제 3 장 문방책가도와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작품 연구

제 1 절 문방책가도를 통한 염원 표현 작품 연구

1) <소원을 담은 이야기>

[그림 10-1] 소원을 담은 이야기, 비단에 채색, 금박, 67×35cm, 2016

〈소원을 담은 이야기〉 는 조선시대 책거리로 에밀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모사를 한 것이다. 일영대(日影臺)라고 적힌 해시계도 보인다.[27] 해시계는 조선중기 이후 서양에서 들어온 기물이다. 일영대 끝에 달린 추는 복(福)을 넣어 잘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육사의 시처럼 청포도는 상큼하게 젊음을 담았다. 밑 부분이 넓은 커다란 꽃병은 안정감을 주며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선비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책 위에는 구름 문양이 있는 금향로를 올려놓아 책보다 소원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책 목록은 중국고서들을 써놓았다.

통감, 고문, 대학, 논어, 주역, 사률, 옥편, 해운, 소학, 중용, 맹자, 서전, 장자이다. 책은 선비들이나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책을 통해 성공을 하고 책을 통해 꿈을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꽃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사랑방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선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사랑을 받고 있다.

국화[28]는 장수를 가져다주며, 액운을 막아주는 부적 같은 신비의 신통력을 가졌다[29] 또한 오랜 친구에 비유하며 화사한 꽃송이는 하늘에 비유하고, 황금빛 국화는 땅에 비유했다. 황색은 광명, 희망, 발전을 의미하며, 붉은 국화는 사치기(奢侈氣)가 있어 집안에 심는 것은 좋지 않으며[30] 늦게 피는 꽃은 군자의 덕이라 한다. 국화가 피고, 참새가 날아오면 집안에 기쁜 일이 넘친다고 한다. 국화는 장수화(長壽花)로 헌화에 많이 사용한다.[31] 지조와 절개, 군자의 기상을 나타내며 사군자의 하나이다.

포도는 다남의 대표적인 과일이다. 포도알이 달려 있는 모습이 자식들을 연상시키고 많은 자손을 의미한다.[32] 특히 다남자(多男子), 다복(多福), 다부(多富), 장수(長壽)도 나타낸다. 고려시대에는 민간까지 파급되었던 신선 사상이라든지 장생신앙, 그리고 자손의 경사스런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

27) 고하수. (1974). 『한국의 꽃 예술사』 . 하수출판사. p.120.

28) "국화가 나에게 한갓 슬픔을 더해 준다기로소니 영혼과 육신이 함께 목마른 지금의 나에게 국화가 없으면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기나긴 가을밤을 어떻게 견디랴"

29) 권영한. (1992).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 전원문화사. p.20.

30) 민족문화추진회. (2007). 『국역 산림경제』 . -고전국역총서 231-. p.160.

3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조선』 . 동아출판사. p.77.

32) 정병모. (2012).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 돌베개. p.113.

꽃병은 봄바람을 일으키는 의미가 있다.

『고문(古文)』, 『대학(大學)』, 『논어(論語)』, 『주역(周易)』, 『두율(杜律)』, 『옥편(玉篇)』, 『해운(海運)』, 『소학(小學)』, 『중용(中庸)』, 『맹자(孟子)』, 『서전(書傳)』, 『장자(莊子)』 등을 적어 놓았다. 고서(古書)들은 마음의 수양이 될 수 있는 책들이다.

재료기법에서 향로는 고분을 쌓아 형태를 만들고, 문양부분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금박을 사용하였다. 서안은 오래된 느낌을 주기위해서 주사의 뜬 물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칠해서 옻을 칠한 듯 색감을 주었다. 포도는 석록을 칠하고 싱그러움을 더하기 위하여 그 위에 호분을 살짝 칠했고, 물기를 머금은듯한 표정을 주기 위해 진하게 발림 하였다.

2) <꿈의 향기들>

[그림 10-2] 꿈의 향기들, 비단에 채색, 금박, 67×35cm, 2016

〈꿈의 향기들〉 은 조선시대 책거리로 에밀레박물관 소장이다. 원본을 모사하였으며, 그림의 연대나 화가는 알 수 없으나 그림 속에 안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그림이라고 추정된다. 소재들은 실용적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물들로 조선시대의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물들이다. 원본 그림 중 수박 대신 차 주전자를 그려 넣었다. 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이로움을 주는 기호음료로 효능 또한 약리(藥理)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두 번 마셔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자주 마시면 그러한 효험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찻잔은 차를 마시기 위한 잔으로, 우주 만물을 담아내고 심성을 맑게 하고 고아한 뜻을 갖게 하는 매력이 있다. 또한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수련을 닦는 도구로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차의 음(陰)기운을 중화 시킬 수 있도록 붉은 주사로 주전자를 칠했다. 주전자를 바치는 접시는 석청을 사용하고 그 위에 다양한 구름문양을 그려 넣어 주었다.[33] 양(陽)의 기운이 가득찬 차 주전자 옆에 백자 개완을 그렸다. 백자는 순백색의 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바르고 만든 도자기이며 조선백자가 유명하다. 백자는 소박하고 단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아하고 고급스럽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소박하고 단순한 백자를 통해 청렴과 순백함을 지향했는지도 모른다. 개완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뚜껑 있는 찻잔을 말하며 차 잎을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이 가라앉으며 왼손바닥으로 개완을 바쳐 들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눌러 주어 뚜껑을 살짝 열어서 차를 마시는데 사용하는 차도구이다. 호분을 사용하여 백자의 자연스런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칠했으며, 가지는 씨가 많아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손번창, 남근을 상징하며, 득남을 기원한다.

대나무는 난초, 국화, 매화와 함께 사군자중 하나이다. 대나무는 축수(祝壽)를 뜻하며, 충신열사와 열녀의 굳은 절개에 비유했다. 대나무는 곧게 서있고 속이 비어 있어 어진사람을 표현한다. 서탁과 서안, 책들이 겹쳐져 놓여 있고, 화려한 기물들과 펼쳐진 책 위의 색안경은 책을 보다 잠시 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34]

33) 김의식. (2005). 『탱화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운주사. pp.37.
34) 국립중앙박물관. (2016).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p.190.

그림 속에 안경이 보이는데 조선중기 이후에 안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35]

서책의 내용은 주역의 '택산함괘(澤山咸卦)'를 썼는데 '택산함괘'는 예술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꿈이 실현하기를 바라는 진솔한 마음을 담았다.

재료기법을 살펴보면, 심산계곡의 맑은 물소리를 부각하기 위하여 검정색을 칠한 위에 순금을 사용하여 산수화를 그렸다. 부채는 주변의 더러운 것들을 날려 보내는 벽사의 기능이 있기에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했다.

푸른 향로는 석청을 사용하여 희망과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젊은 미래를 나타냈다. 향로 윗부분은 순금을 사용하여 신성한 기물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고, 손잡이는 금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주었다. 푸른 향로의 몸통 윗부분 문양은 고분을 쌓았다. 고분을 쌓아 투각처럼 보여 정성을 드려 만든 향로로 보이도록 하였다. 안경은 색을 넣어 색안경의 느낌을 주었다. 꽃병 속에 꽂혀 있는 꽃가지의 곡선에 호분을 사용하여 줄기를 돋보이게 하였다.

35) 고하수. (1974).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387.

3) <감성을 품고 날개를 펴다>

[그림 10-3] 감성을 품고 날개를 펴다, 비단에 채색, 금니, 40×30cm, 2016

홍익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인 8곡 병풍 중 일부를 모사하였다.[36] 파초와 상아, 영지초, 병, 붓, 두루마기종이, 아얌, 서안 등이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파초그림이나 문헌의 〈파초변종작출법〉 등을 볼 때 파초는 격조 높은 식물로 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37] 또한 높은 벼슬을 상징한다.

정병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고 편안함을 나타낸다. 산호 또한 높은 지위를 상징하며 영지초(靈芝草)는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불로초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38] 복이란 글자는 장수를 뜻하며, 오복은 사람들의 염원이다.

서안 역시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로 장식을 최소화 하고 간결하고 단아한 가구를 선택 했다.[39] 문갑은 선비들의 필수 요소이다.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책상이 없으면 할 수 없듯이 늙고 젊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다.

창을 닦고, 책상도 닦고 반쯤 남은 차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난다.[40]라고 한 것을 보아 서안을 마음 닦듯이 소중하게 다루었음 알 수 있다.

태극거울은 높은 신분이나 부귀의 상징이었다. 음과 양의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태극처럼 둘이 하나가 되듯이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추고,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자 함을 표현했다.

재료기법으로 파초의 이파리는 먹 분염을 하여 진한부분과 연한부분을 표현하였고, 석록을 칠해주었다. 높은 벼슬을 나타내듯 인맥은 호분을 사용하여 웅장함을 더해주었다.

꿈속에서 보니 붓끝에서 꽃이 생기다는 말처럼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붓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41]

아얌의 털도 가늘게 선을 그어 털의 섬세함을 나타냈으며, 자연산 영지초의 모습을 그리고자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부분을 호분으로 모양을 만들었으

---

36) 고하수. (1974).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387.

37) 고하수. (1974).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387.

38) 위의 책. p.119.

39) 국립중앙박물관. (2016).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40)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조선후기 '민화'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소고 『미술자료』, 제66권, pp.13.

41)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조선후기 '민화'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소고」. 『미술자료』, 제66권, pp.13.

며, 산호 모양도 괴석을 닮은 듯 가장자리 부분을 진한 색으로 처리하여 산호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책도 조선시대의 책표지에 쓰였던 비단들의 문양을 골고루 넣어 주었다. 서안 역시 나무의 결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 나이테 문양을 먹으로 분염하여 선명함을 더해주었다. 향로는 금을 사용하여 향로의 고급스러움 더해주고 주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선 분염을 하여 향로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4) <행복한 일상을 꿈꾸다>

[그림 10-4] 행복한 일상을 꿈꾸다, 비단에 채색, 금니, 40×30cm, 2016

〈행복한 일상을 꿈꾸다〉 에서 책이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기물이나 꽃등 다른 것들이 책 못지않게 귀중하게 여겼으면 알 수 있다.

책은 출세를 나타내지만 다른 기물이나 식물들은 부귀, 장수, 다남, 평안 등 길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책거리가 학문의 의미를 넘어 길상의 의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42]

겹겹 쌓아 올린 서책들 앞에는 두루마리 책들을 쌓아서 여러 가지 문양으로 멋을 냈다.

석류는 집안에 심으면 자손이 잘된다는 속설이 있으며 다자(多子)를 상징한다. 석류의 붉은색을 강조하기 위하여 쟁반은 금을 사용하였다. 금의 화려한 색깔에 곧 터질 것만 같은 붉은 석류의 수줍은 모습을 금을 칠하여 표현하였다.

두루마리종이는 막힘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다.

향로 앞에는 수(壽)라는 글자를 넣어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고, 긴 다리의 향로는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회화적으로 작가의 마음이 표현되도록 형태에 분염을 주었다.[43] 특히 긴 세발의 청동 향로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석록을 칠하여 밝은 모습이 보이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청화백자(靑畫白磁)는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粉靑沙器)와 더불어 한국 도자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순백자(純白磁)와 청화백자가 대표적이다.[44]

진한 석청을 사용하여 청자 빛 화병의 느낌을 주었다. 푸른 화병위에 꽂혀진 꽃은 화사하다 못해 사랑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

42) 서예박물관, 현대화랑. (2016).『조선 궁중화 · 민화 걸작 문자도 · 책거리』. 예술의전당, 현대화랑. pp.274.

43) 경기도박물관. (2012).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p.274.

44) 강지윤. (2001).『한국 청화백자의 과학적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5) <소박한 꿈에 색을 물들이다>

[그림 10-5] 소박한 꿈에 색을 물들이다, 비단에 채색, 금니, 40×30cm, 2016

원본은 국립민속박물관소장이며, 책거리(병풍) 일부를 모사하였다. 조선시대의 화가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존의 구두법하고 전혀 다르게 서책을 위아래로 가득 쌓아두고 그 옆에는 커다란 꽃병에 꽃을 꽂고 밑에는 벼룩과 먹, 향로, 향합, 자유롭게 배치를 하였다. 단정하고 아담한 작은 작품이지만 공간처리는 대담하고 동선의 거리가 크고 긴장감이 있는 작품이다.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필요 없는 것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당시의 선비들의 미의식하고는 다른 자유분방한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넓은 공간에 펼쳐놓은 기물들은 현대인들의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하였다.

붉은 향합[45]에 그려진 용은 청룡을 그렸다. 고대인들은 용을 물 순환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다.[46] 벼루에 물을 따르고 먹을 갈고 벼루를 닦으니 물고기가 먹을 삼킨다고 하였다.[47] 서책 앞에 먹을 갈다 잠시 쉬는 듯한 표정을 담았다. 특히 화병은 호분을 사용하여 백자의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 백자화병 안에는 고급 안료인 석청을 칠해주어 호사스러운 꽃병을 만들어 주었다.

45) 향을 넣어 두는 작은 그릇.

46) 학고재. (2001). 『백제금동대향로』 . p.190.

47)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조선후기 '민화'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소고』 . 『미술자료』 , 제66권, pp.12.

제 2 절 향로를 통한 염원 표현 작품 연구

1) <복이 가득한 자리>

[그림 10-6] 복이 가득한 자리, 비단에 채색, 45×38cm, 2016

『금문신고(金文新攷)』 속에 나오는 다양한 금문들과 고려시대의 향로를 넣어서 복이 가득 찬 그림을 그렸다. 고려의 청자정형향로는 『선화박고도』에 수록된 상대 후기 정을 그대로 만들지 않고 고려화 된 기형과 문양을 고려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제작하였다. 장식화 된 다리는 짧고 몸체를 상하의 2단으로 나누고 상단위에는 구름 바탕에 앞과 뒤에 두 방향으로 도철 문양을 넣었다.[48] 중국 고동기를 모방한 것으로 삼족쌍이(三足雙耳)의 정형(鼎形)이다.[49] 몸체에는 세로로 여러 개의 양각으로 문양이 나와 있고 가로로 한줄기 홈을 팠다.

‘금문(金文)’이라고 하면 대나무나 나무, 돌, 각종 뼈다귀, 거북 껍질, 쇠나 철 등에 새겨진 글자를 일컫지만 우리의 시조인 신농(神農)과 그 겨레가 만든 최초의 문자라고 한다.[50] 금문은 고조선의 역사를 글씨로 표현한 글인데 글자 속에는 고조선의 역사는 물론 글자 속의 의미는 방대하다. 글자 중 현대인들에게 좋은 의미만을 택하여 그림 속에 넣어보았다.

향로 상단의 큰 글자는 ‘丨’자와 ‘一’ 금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글자이며 신농의 이름이다. 신농은 농경과 목축을 가르치며 우두머리, 왕중의 왕이었다. ‘丨’과 ‘一’ 두글자 합치면 열십(十)이 된다. 열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와 아래가 열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들이 태어난다는 좋은 이야기이다. ‘丨’는 돈을 만들고 관리하는 ‘님금님’[51]으로 해석한다.

향로 우측의 누에 그림은 누에의 신(神)을 말한다. 서울 성북동에 선잠단터(先蠶壇址)가 있고, 창덕궁 후원의 서향각은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친 어친잠실이었다. 인류의 발전 중 가장 큰 발견은, 불(火), 흙을 불에 구워 만든 토기의 출현, 농경, 즉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양잠의 발견이다. 이 세 가지가 인류 문화를 크게 발전시킨다.[52] 누에(辰)는 후대에 용의 모양으로 변한다.

향로 하단 돼지의 옆구리에 그려진 우물 정(井)자는 넉 사(四)의 시원자이

48)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향로』. p.17-18.

49) 유승열. (2004). 『전통향로를 응용한 현대 도자향로 제작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50) 김대성. (2002).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서문.

51) 김대성. (2002).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p.117.

52) 위의 책. p.68.

다. 돼지는 예로부터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였다. 현대인들도 돼지꿈을 꾸면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봉사(冊奉使)'는 왕실의 책명을 받아 사방 제후국에 사자(使者)로 또 왕실의 기록을 편찬하는 사자(史者)로 활동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 높은 직책을 말한다.[53]

향로의 왼쪽에 있는 중여(衆艅)'는 대례관 관직명이다. 여(艅)에서 발전한 '짐(朕)'은 천자나 황제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존칭이다. 사당에 차를 올리는 제주라는 뜻의 중여 곤을 뜻하는 글자였다고 금문신고에서 말하고 있다. '여(艅)'는 '사당에 잔을 올리는 사람'으로 '술(酌)' 은 신주(神主) 오른쪽에 '차(茶)'는 신주(神主) 왼쪽에 올려 차가 술보다 더 귀한 제물이 되어 상석(上席)에 모셔졌다고 풀이된다.[54]

향로 바로 위에 있는 글자는 '조선(朝鮮)'의 '조(朝)'는 '조(祖)'의 소리 값이라고 한다. 아침을 나타내며, 내 님, 나랏님, 우리 님, 태양, 밝은 님, 우리나라 등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55]

향로를 중심으로 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모습이다.

53) 김대성. (2002).『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p.214.
54) 김대성. (2002).『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p.197.
55) 김대성. (2002).『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p.62.

2) <우주의 향기를 받다>

[그림 10-7] 우주의 향기를 받다, 비단에 채색, 금니, 45×38cm, 2016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위에 떠 있는 별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별을 유난히 좋아해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체 모습을 그려 넣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 색상이 흰색으로 보이지만 각각 고유의 색이 있다. 자미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별들을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했다. 파란색은 희망적이고 긍정을 나타내므로 표현하였다. 자미원은 우주의 강렬한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28수의 중요한 별들이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자미원은 석청으로 배채하고 앞부분은 주사를 칠했다. 자미원의 가장자리는 주사를 여러 번 칠하여 붉게 하고 가운데는 주사를 엷게 하여 검은빛을 띤 검자주색의 느낌을 주었다

은하수는 일명 천한(天漢)이라고도 한다.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보면 은색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이 금을 좋아하므로 순금을 사용하여 금가루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은하수를 귀한 물로 생각하여 시를 읊기도 하였다.

진각국사의 시 <달을 보는 누대와 이웃하여>에 보면 북두자루로 은하수의 물을 퍼서 차를 달이는 초현실적인 모습이 보인다.

달을 보는 누대와 이웃하여
우뚝 솟은 바위 무더기 몇 발인지 알까마는
위에 있는 높은 누대 하늘 끝에 잇닿았네.
북두칠성자루로 퍼낸 은하수 물로 밤차(茶)를 달이니
차(茶) 연기는 달(月)속 계수나무를 싸늘하게 닫는다.[56]

.

56) 김명배. (1994).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pp.196.

그림에서 자미원을 둥글게 표현하여 사각향로를 그려 넣었다. 고려시대의 향로를 모사하였으며, '청자도철문장정형향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방형(方形) 향로이다. 향로의 형태는 직사각형의 몸체에 동물모양의 짧은 다리와 사각형의 수직귀가 붙어 있다. 몸체의 문양은 사각형틀 안에 뇌문을 바탕문양, 도철을 주문양으로 한 이층화의 구조이고, 목에서 한 단 안쪽으로 꺾인 부분에는 기문을 주문양으로 표현하였다.[57] 뚜껑이 없고 원형형태를 벗어나 노신(爐身)에 각을 준 형태이다.[58] 우주 속에 함께 있는 향로 모습과 모든 기운을 다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세로 그려 넣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공자께서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별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59] 하였다. 천체의 운행과 같이 인간의 이치도 바르게 돌아간다면 우리의 현실은 좀 더 밝고 희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7)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향로』 p.19.

58) 유승열. (2004).『전통향로를 응용한 현대 도자향로 제작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59) 유교문화연구소옮김. (2012).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26.

3) <천수를 누리소서>

[그림 10-8] <천수를 누리소서> 비단에 채색, 금니, 45×38cm, 2016

어릴 때 밤하늘을 보기 좋아했고, 파란 하늘위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유난히 북두칠성을 좋아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을 때 북두칠성의 의미를 알고 더 좋아하게 되었다. 우주에 떠다니다 충동한 별똥별이 떨어지면 소원을 빌었다.[60] 별은 보통 육안으로 은색으로 보이지만 금색별로 표현해보았다. 금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동산의 가치가 있고 누구나가 금을 좋아한다. 별에 대한 동경을 금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파란 하늘위에 유난히 크게 떠있는 북두칠성을 금을 이용하였다. 김홍도의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중 왕천익수(王薦益壽)에 남자가 북두칠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다.[61] 신에게 꽃이나 식물을 꺾어서 바치는 모습들은 나뭇가지를 신의 하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대성북두칠원성군(大聖北斗七元星君)'이라는 별은 모든 질병을 소재하는 신이며 사람의 목숨과 자식을 점지해 주는 별이라고 한다.[62]

제갈공명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생사를 점쳤다.

사람의 명(命)은 칠성(七星)님이 주신다는 한국인들의 오랜 칠성사상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주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무섭고 친근한 별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은 산업사회로 납골당과 수목장으로 시신을 화장 하고 뿌리지만 예전에는 시신을 관에 넣기 전에 바닥에 까는 칠성판에 일곱 개의 구멍을 냈다. 그나마 사라져 그림만 그리다 지금은 아예 사라진 옛 풍습이 되어버렸다.

향로는 청자정형향로로 고려시대 불교의례에 사용되었던 향로이다. 원주 법천사지 출토 되었고 지름은 몸체만 있지만 법천사의 미타회를 열 때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구름의 색깔은 붉은 구름과 파란 구름 두 가지로 음양(陰陽)의 조화 속에 별이 떠있는 형상을 그렸다. 연하게 칠하여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구름을 연상하게 하였다.

구름은 입신출세를 뜻하며, 자연의 순조로운 조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농경사회의 풍요로운 힘을 상징한다. 상서로움, 장수를 나타낸다. 바람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구름이야말로 광휘의 연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정적을 넘어

60) 이태형. (1989).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김영사. p.64.
61) 고하수. (1993).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22.
62) 김민기. (1987). 『한국의 부작』. 보림사. p.104.

새롭게 약동하는 기운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름문양은 천상계의 부활, 재생의 의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63]

버드나무는 생명력이 있으며 가지에 물을 묻혀 뿌리면 악귀사신(惡鬼邪神)을 물리쳤다는 민간신앙도 있고 불교경전에 버드나무는 관음보살의 표상으로 "맑고 보배로운 병에 감로수(甘露水)를 가득 채우고 버드나무를 꽂아 병고(病苦)에 시달려 헤매는 항하(恒河)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버드나무로써 그 물을 뿌렸다"는 말이 나온다.[64] 화엄경에도 버드나무를 씹으면 그 마음이 깨끗하여 모든 번뇌를 씹어 버릴 수 있다 하였다. 버드나무는 유연한 마음을 나태내기도 하고 춘풍(春風)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물을 뜻한다. 버드나무 잎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고려의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에는 손이나 정병에 버드가지가 그려져 있는데 보살의 자비심을 상징한다.[65]

'화엄경정행품(華嚴經淨行品)' 열한 번째에 보면, "손으로 버들가지를 잡거든 마땅히 중생이 다 묘(妙)한 법(法)을 얻어 구경에 청정(淸淨)하기를 원하며 버들가지를 씹을 때면 그 마음이 깨끗하여 모든 번뇌를 씹어 버리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다.[66] 중국 사람들도 버드나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고 벽사의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버드 나뭇가지를 걸어 문간에 달아두면 백 가지 잡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한다. [67]

6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조선』. 동아출판사. pp.320.
64) 고하수. (1993).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74.
65) 이상희. (2004). 『꽃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 서울:넥서스BOOKS. p.554.
66) 고하수. (1993).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19.
67) 이상희. (2004). 『꽃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 서울:넥서스BOOKS. pp.559.

4) <꽃속에 깃든 소망>

[그림 10-9] 꽃속에 깃든 소망, 비단에 채색, 금니, 40×38cm, 2016

신불에게 꽃을 바치는 의미중 하나는 꽃은 끊임없이 재생하면서 생명을 지속하기 때문이다.[68]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뜻하고 신성시했기 때문이다. 꽃은 축하, 행복, 번영, 위문, 사랑을 표현한다. 겨울의 매화는 회춘(回春)을 상징한다.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조희룡의 '홍백매도'란 그림에 보면 은하수에서 쏟아 내린 별무늬라든지, 오색 빛깔 나비를 풀어 놓은 것 같다고 씌어 있다.[69] 겨울은 땅이 얼고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절이다. 매화는 겨울이 끝나고 바로 피기 시작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꽃이다. 꽃꽂이 중에 꽃을 뿌리는 산화(散花)[70]방법이 있다. 흩날리는 꽃을 말하며, 불사(佛事)에서 기원이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석존(釋尊)이 열반에 들 때 사라수쌍수(沙羅樹雙樹) 밑에서 향화(香華)가 흩날리고 그윽한 음악이 들렸다고 한다.[71] 비화(飛花)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형태이다. 조선시대 탁산화(卓散花)는 탁자위에 놓는 꽃의 전신(前身)이 된다. 궁중에서 노인을 위한 기로연에 산화(散華)를 행한 기록도 나온다.

청동 거향로[72]에 매화가 흩날리며 흔들거리는 향로위에 떨어지면서 꽃 속에 스며있는 소망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매화는 호분을 이용하여 분염 하였으며 다양한 매화꽃이 필수 있도록 하였다. 거향로는 오랜 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여러 번 칠하였다.

---

68) 고하수. (1993).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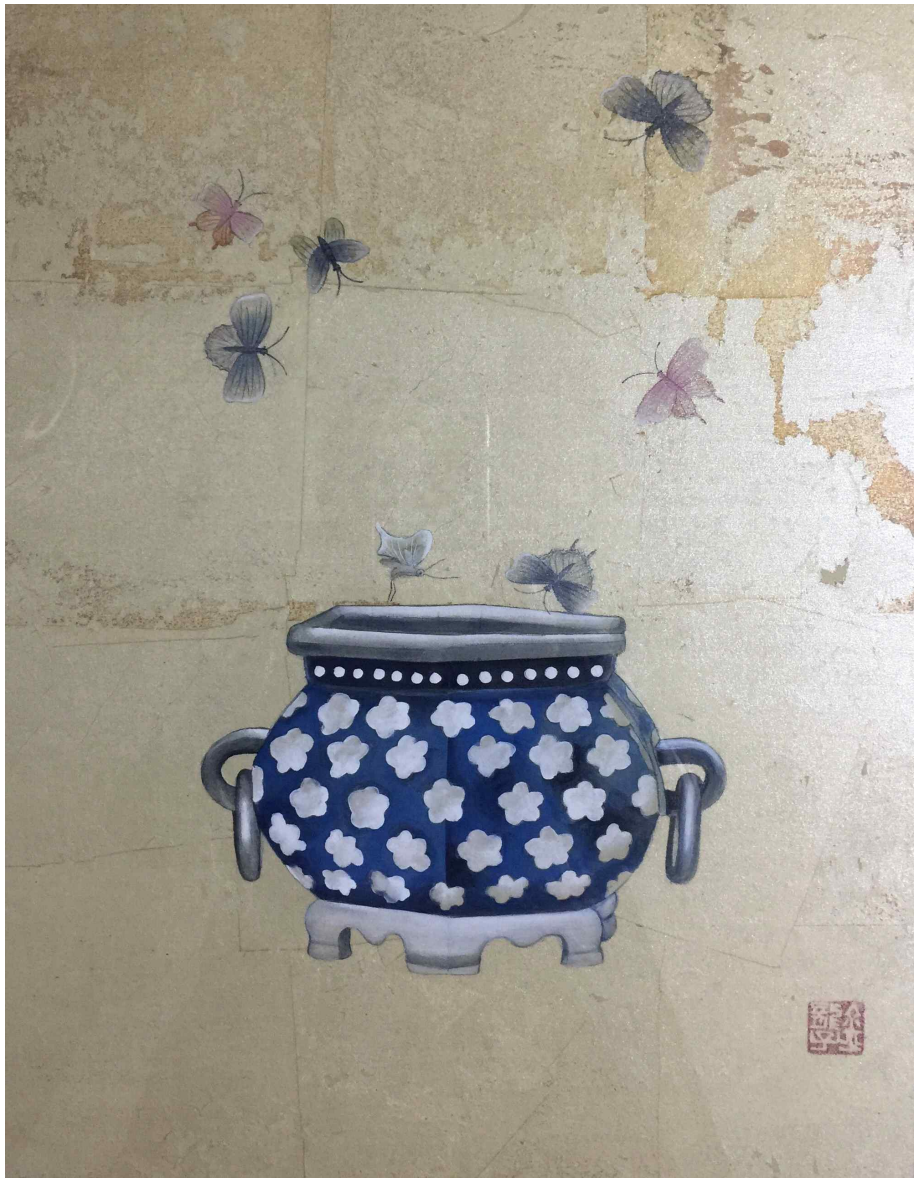
69) 이상희. (2004).『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넥서스BOOKS. pp.232.

70) 공중에 흩날리는 천만 조각은
장안 몇몇 집에 날아 떨어지는구나.
저 붉은 꼭두서니 소매에 붙으면
풍류객이 너를 일러 꽃이라 하리(飛花)중에서
고하수. (1993).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p.79.

71) 전원임. (2004). 『불전 헌공화에 대한 연구: 조선 후시 감로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72)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향로』. p.49.

5) <푸른 꿈이 훨훨 날다>



[그림 10-10] 푸른 꿈이 훨훨 날다, 비단에 채색, 금박, 40×30cm, 2016

조선시대 백자 청자 꽃무늬 다각 향로(白磁靑彩花文多角香爐)이다.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순수하고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향로이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간결하고 품위 있는 문양과 시원한 여백으로 멋을 내고 있다.[73]

조선시대의 기물이다. 청화향로 위에 나비를 그렸다. 나비는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닌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청화 색으로 표현하였다. 파란하늘은 어릴 때 막연하게 꿈꾸었던 시절의 소망과 꿈이었다. 봄에 나방에서 나비로 환원하여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향해 노력하는 미래의 꿈이다.

나비는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였다. 나비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 특히 나비는 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고려와 조선시대 많이 그려졌다. 즐거움, 80세, 장수축원 등으로 노인들에게 축수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

맑고 높게 갠 하늘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사람들의 심성을 차분하게 만든다. 또한 젊은이들의 활발한 성격을 대변하고 무한한 깊이가 느껴지는 색상이다. 청색은 활발하면서 젊음을 나타낸다. 바탕은 금박을 붙여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움을 주었다.

73) 남학호. (2004). 『조선백자(朝鮮白磁)에 나타난 문양(紋樣) 연구』. 대구대학교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

제 4 장 결 론

책가도는 어느 기물에 속박되지 않고 다양한 대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서양의 원근법과 명암법을 활용하여 사실적이며 서양의 정물화 같은 효과가 있다. 책가도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적 욕망을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향로 역시 인간의 염원을 표현하는데 차이가 없다.

책가도 속의 기물을 통한 염원을 바라는 모습이나, 향로에 향을 피워 인간의 나약함을 신에게 고하고 기복을 원하는 모습은 상반 다를 바 없다.

책가도와 향로를 통해서 단순한 장식으로 보이는 책가도가 아닌 인간의 염원을 표출하는 도구로써의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

책가도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들을 많이 낳고 출세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며, 매우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이고 환상적으로 연출했다는 점에서 멋과 기상을 엿볼 수 있었다.[74]

기물을 통해서 부귀영화(富貴榮華), 장수(長壽)와 같은 인간의 원초적 소망을 이루려고 하였고, 가족의 번창을 기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희망하였다.

인간은 자연의 한 매개체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하고 스스로 통찰을 통해 성숙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수양을 위해서 인간은 향로라는 매개체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쑥이 향초(香草)의 일종이므로, 오랜 전 선조들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75]

---

74) 서예박물관, 현대화랑. (2016). 『조선 궁중화 · 민화 걸작 문자도 · 책거리』. 예술의전당, 현대화랑. pp.243.

75) 호영아. (2014). 『고려시대 상형청자연구 : 상형청자의 종류와 시대적 변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향은 정치적으로 군신 간에 총애의 표시로 향료를 내리기도 하였고, 향안에서 향을 피우고 예의를 갖추기도 하였다. 향 문화는 종교를 떠나서 상징적인 예의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76]

명상의 최종 목적은 자기가 염원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학적 바탕은 매우 깊고 폭넓게 자리 잡았다. 홍현주는(洪顯周. 1793-1865) 가 17세(1809)에 지은 동가십경(東嘉十景)이라는 시에 보면 선비들이 향을 태우고 마음을 좌정하고 늘 벼슬이나 부귀를 위해 청렴함을 해치지 않으며 노력하고 군자는 제 위치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은 참선할 때는 망념도 함께 떨친다고 하였다.[77]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자등향을 피워 귀신을 몰아낸다고 하였다.[78]

우리의 생명은 이슬처럼 덧없는 것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생명이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정직하며, 신중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정신생활을 해야 한다. 명상은 고요한 가운데 침착하게 모든 사물이나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관(靜觀)하는 일이다. 물질문명으로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히말라야 산을 찾는 이유도 자기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하는 열망에서이다. 명상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심성을 정화시킨다. 명상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우주와 자연, 사회와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과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물음을 주는 요소이다. 선(禪)은 내 마음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번뇌, 욕망과 생상의 윤회에 벗어나 행복을 느끼고 영원한 자유로움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화두(話頭)로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실 된 길을 찾아가는 길이다. 일상생활에서 참 나를 찾기 위해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자기를 관조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길이다.

---

76) 전혜숙, 이애련. (2005). 「당대 향 문화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7권3호, p.418.

77) 정영선. (1995). 「차문화에 나타난 선사상(禪思想)」. 『차문화연구지』, 제4권, p.41.

78) 전혜숙, 이애련. (2005). 「당대 향문화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7권3호, p. 418.

바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희망과 소망이 향로를 통해서 행복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였다. 책거리속의 상서로운 기물들은 가족모두의 건강과 자식의 출세를 바라는 마음을 아름답게 담았다. 본인 작품은 사람들의 염원인 행복과 장수를 기도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향기로운 이야기로 표현을 하였다. 단순한 그림 이전에 편안한 삶을 바라는 마음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경기도박물관. (2012). 『조선 선비의 서재에서 현대인의 서재로』.

고하수. (1993). 『한국의 꽃예술사』. 하수출판사.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향로』.

국립중앙박물관. (2016).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권영한. (1992).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전원문화사.

김대성. (2002). 『금문의 비밀』. 컬처라인.

김명배. (1994). 『한국의 다시감상』. 대광문화사.

김민기. (1987). 『한국의 부작』. 보림사.

김의식. (2005). 『탱화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의 세계』. 운주사.

민족문화추진회. (2007). 『국역 산림경제』. -고전국역총서231-. 한국학술정보.

서울역사박물관. (2009). 『옛 그림을 만나다』.

서예박물관, 현대화랑. (2016). 『조선 궁중화 · 민화 걸작 문자도 · 책거리』. 예술의전당, 현대화랑.

유교문화연구소옮김. (2012). 『논어』.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상희. (2004).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서울:넥서스BOOKS.

이태형. (1989). 『재미있는 별자리여행』. 김영사.

임두빈. (1993). 『한국의 민화1』. 서문당.

정병모. (2012).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돌베개.

정영선.(1996). 『다도철학』. 너럭바위.

최완식택해. (1990). 『周易』. 혜원출판사.

학고재. (2001). 『백제금동대향로』.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조선』. 동아출판사.
허충순. (2003). 『韓國의 茶席花』. 시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1994). 『상상동물이야기』. 까치.

연구논문

강관식. (2001). 『조선후기 궁중 책가도 조선후기 '민화' 개념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소고』. 『미술자료』, 제66권.
강지윤. (2001). 『한국 청화백자의 과학적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화. (2005). 『민화 책가도의 표현 방식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학호. (2004). 『조선백자(朝鮮白磁)에 나타난 문양(紋樣) 연구』. 대구대학교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은. (2016). 『물고기를 형상화한 백자향로 제작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열. (2004). 『전통향로를 응용한 현대 도자향로 제작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화진. (2013). 『조선시대 향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원임. (2004). 『불전 헌공화에 대한 연구:조선 후시 감로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혜숙, 이애련. (2005). 「당대 향 문화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7권.
정영선. (2001). 「대둔사(大芚寺)의 다맥(茶麥)」. 『차문화연구지』, 제10권.
정영선. (1995). 「차문화에 나타난 선사상(禪思想))」. 『차문화연구지』, 제10권.
호영아. (2014). 『고려시대 상형청자연구 : 상형청자의 종류와 시대적 변천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Desire through the Munbangchaekgado and the Censer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s –

Kim, Yong-Ja

Major in Oriental Painting and True Colored Painting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re are books, antiques, flowers, glasses, teacups, teapots, exotic stones, fruits, clocks, and various other objects in the Munbangchaekgado. Chaekgado is a symbolic picture that shows the emotional and material comfort. The auspicious aura has been tried to express beautifully by using the Jinchae technique.

Any human being hopes to live happily, and dreams of comfort and abundance. The auspicious objects in the book street are filled with bless-wishing belief and petition for luck, praying for children's successful career and happiness. It was judged that the simple hobby of enjoying things woul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t is because the fact that the censer is arranged in between Chaekgados and at the center of pictures means that it is precious thing to contain the desire of people of old and present time.

Censer is a tool to incense. The censer is used for religious rituals, but also necessary in meditation in addition to religious events in modern times. Incense stabilizes the mind and body, satisfies the human senses and emotion, and helps to cultivate deep enlightenment and inner discipline.

The 'Chaekgado and Censer' contains a significance that the supplication for happiness and long life, and the desire and petition for good life beyond mere ornamental painting attempt to coexist crossing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to show hope for a better future.

【Keyword】 Munbangchaekgado, Censer, Happiness, Long life, Hope, Traditional deep-color pigment technique